

경제

# 금호생명 해외투자 2,800억 손실

## 금융당국, 전·현직 CEO 중징계

## 금호측 “금융위기로 손실 더 커져”

산업은행에서 인수를 추진 중인 금호생명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위험(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안해 2천8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금호생명의 지급여력비율(보험금 지급 능력)이 추락하는 등 부실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금호생명과 이 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했다.

그러나 금호생명측은 투자손실분 가운데 2천500억원 가량은 향후 경기 회복에 따라 회수 가능한 평가손실로, 전담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후책임을 묻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징계가 금호생명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호생명에 기관결고를, 최병길 전 사장과 박병욱 현 사장에게 문책결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09년 6월 투자를 조사한 결과도 대대다.

조만간 열릴 금융위원회에서 제재가 확정되면 금호생명은 3년간 다른 금융업 진출이 제한되고 전·현직 두 사장은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거나 연임을 못 하게 된다.

부적절한 해외 투자로 손실을 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지난 해 9월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직무정지)에 이어 보험업계에서는 금호생명이 처음이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금호생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 파생상품과 유가증권, 부동산펀드 등에 약 8

천억원을 투자해 작년 6월 기준으로 약 2천800억원의 손실(평가손실 포함)을 냈다.

금호생명은 보험업법과 외국환거래법상 자산 운용 때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을 확보하고 자기 자본의 10% 이상을 투자할 때 내부 위험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호생명에 대해 2004년과 2006년에 고위험 자산 투자를 줄이고 내부 위험관리 기준을 운영하도록 조치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수익성만 추구하는 투자를 계속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손실이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호생명 관계자는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이며 해외 부동산 경기 등 대외 여건이 나빠지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국내에 장기 투자할 곳이 적어 전략적으로 해외 투자를 한 것으로, 자체 리스크 관리를 했지만 국제 금융위기로 평가손실이 커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외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생명은 해외 투자 손실로 지급여력비율이 작년 3월 말에 30%대까지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100% 밑으로 하락하면 적시정정조치를 하게 된다. 금호생명은 이후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나 작년 말 기준으로 90%대로 다시 떨어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생명을 매물로 내놓았고 산업은행과 간사스자산운용은 사모펀드(PEF)를 설립해 금호생명을 인수하는 계약을 작년 말 맺었다. 오는 3월 말까지 인수가 끝나면 금호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하며 경영이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산업은행과 간사스자산운용이 금호생명을 인수하면 현 경영진을 몰갈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이 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조달청 조기발주 설명회**  
광주지방조달청(청장 유근성)은 28일 오후 광주청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시설공사 업체 및 관련 협회 임직원들을 초청해 정부시설공사 조기집행 조달업무 설명회를 가졌다. 광주조달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시설공사 사업 4천100억원 중 74%인 3천500억원을 상반기에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 채권단·대우건설 FI, 원리금 차등 출자전환 논의 금호산업 워크아웃 새 국면

### 來 3일까지 2,800억 긴급지원 서면 동의 추진도

금호산업 채권단과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 상태인 금호산업의 채무에 대해 차등적으로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호그룹 구조조정을 놓고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협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권단은 회수가 불가능한 원금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회사의 무담보채권처럼 대우를 해줄 수 있지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건설 FI들이 나머지 이자금에 대해서는 2대1 등의 비율로 차등 출자전환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FI들은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1만8천원으로 산업은행에 매각하면 2조3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지만 풋백옵션 가격(3만2천500원)과의 차이로 인한 1조7천억 원은 회수하기 어렵다.

채권단은 회수가 불가능한 원금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회사의 무담보채권처럼 대우를 해줄 수 있지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건설 FI들이 나머지 이자금에 대해서는 2대1 등의

## 지역 제조업 2월경기 ‘낙관’ 대우일렉, 베트남 시장 공략

### 한은 533개 업체 조사 ... BSI 4포인트 상승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은 2월 경기 전망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매출액 20억원 이상 533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0년 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1월 중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97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의 2월 업황전망BSI는 지역 주력 업종의 업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달의 91에서 95로 4포인트 상승했다. 1월 제조업 매출BSI(106→108), 생산BSI(99→115), 내수BSI(101→109), 수출BSI(107→117), 가동률BSI(100→108) 등이 모두 오름 추세를 보였다.

2월 제조업 전망은 매출전망BSI가 116으로 전달보다 11포인트 상승한 것을 비롯, 생산전망BSI(108→119), 신규수주전망BSI(98→104), 가동률

전망BSI(102→115) 등으로 모두 기준치 100을 웃돌았다.

그러나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1월 업황전망BSI가 75로 전달보다 7포인트 하락했고 매출BSI(81)는 전달 수준을 유지했지만 채산성BSI(93→84)가 9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전국적인 제조업 체감경기는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2천3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월 업황BSI는 93을 기록, 2002년 4분기(96) 이후 가장 높았다.

1월 업황 BSI는 지난해 12월보다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2월 43까지 떨어졌던 업황 BSI는 10월 92까지 상승했다가 11월과 12월 89로 주춤했지만 이번엔 반등했다.

다음 달 업황 전망 BSI도 92로 1월 전망보다 2포인트 올라 2개월째 상승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백색가전 해외 시장확대에 나선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베트남의 상업용 냉장고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대우일렉은 27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대우호텔에서 현지 바이어 150여명을 초청해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에서 주로 쓰이는 상업용 냉장·냉동고(사진) 신제품 설명회를 했다.

베트남의 상업용 냉장고 시장은 연간 30만대 규모로, 대우일렉은 올해 5만대, 내년에는 10만대를 팔아 점유율 1위에 오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우일렉은 이날 행사에서 현지 유통업체와 3만15천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베트남의 일반 냉장고 시장에서 30%가량의 점유율을 기록한 대우일렉은 현지 공장을 건설, 공급할 예정이어서 상업용 냉장고 시장의 점유율도 빠르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 1,642.43 (+16.95)
코스닥지수	▲ 517.40 (+0.97)
금리 (국고채 3년)	▲ 4.31% (+0.08)
원·달러 환율	▼ 1,151.50원 (-8.4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 금호타이어 내달 1일 조기 임단협

### 노사 자구안 마련 주목

금호타이어 노사가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다음달 1일 임단협(임금·단체 협상)을 개시, 자체 자구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권단과 회사, 노조 간 구조조정에 대한 이견차가 커 진동이 예상된다.

28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워크아웃에 대한 자체 자구안 마련을 위해 노사가 조기 임단협 개시에 합의, 다음달 1일 교섭위원 상건례를 갖고 본격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사는 채권단의 구조조정 계획에 끌려 다니기보다 자체 자구 노력을 통해 회생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기 임단협은 회사 측이 제안했다. 지난 21일 회사 측은 “노사 합의에 의한 자구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며 ▲협력을 통한 전자적 고용분담으로 채권단 신뢰 확보 ▲합리적 수준의 구조조정으로 도약 기반 구축 ▲시장에 회생 의지 표명 ▲조기 운영자금을 통한 임금 지급 및 공장 가동 정상화 조건 충족 등을 제시하며 조기에 조기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2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회사 측의 조기 임단협 요구를 수용했다.

노조는 임단협에 대비해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직원대우자문차,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등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사업장에 교섭위원들을 파견해 워크아웃과 관련한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기 임단협을 바라보는 시각과 목표가 달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회사 측은 워크아웃을 계기로 이번 협상에서 불필요한 생산체계를 개선한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인원 감축과 임금 삭감, 복리후생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는 임단협을 통해 노조원들의 생존권과 고용 유지 방안을 적극 옹호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협상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인동상일부동산**  
☎ (FAX) 233-1772 | 011-602-2532  
(명동점 신명빌딩, 대인동 소정사건-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소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남편에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남편에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하신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FAX) 383-5221 |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상가 임대**  
(상무지구 세정아울렛과 백양사이)

총별	임대	권장 용도
1층 555㎡ (168평)	1,800만원	금융기관 의류 등
2층~4층	400~500만	병원, 학원 사무실

**상가 매매, 임대**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주변)

총별	임대	권장 용도
9층 350㎡ (107평)	350만원	학원, 독서실 사무실 등
10층 495㎡ (150평)	350만원	

**상가 임대**  
(동원 2지구 정류장 앞)

총별	임대	권장 용도
5층 495㎡ (150평)	280만원	학원 노래방 등

맞춤주분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수원지구 롯데마트 앞 엘리스타워빌딩**

1층: 약국, 커피전문점, 골프용품, 유아용품, 파스타푸드, 편의점 등  
2층: 패밀리아파트, 전문식당, 유아용품, 아웃도어  
3층: 병·의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층: 병·의원,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등  
5층: 병·의원, 정형외과, 한의원, 바독학원, 당구장 등  
6층: 학원, 영어, 수학, 인성, 미술, 음악, 전문학원, 독서실 등  
7층: 스키아리나지, 생맥주 호프바

**\*각층 약 230명 (분할가능)\***

○대지매매○  
• 수원동 롯데마트 옆 10×10×6m코너 상업용지270㎡ 투자최고, 수익률 최고, ㎡당 225만원

○점포임대○  
• 수원동 주변대포현(35m,4번로) 3층사무실 140㎡ ㎡당 110만원 의원, 학원, 사무실적합  
• 수원동 삼성전자 옆 의환은행건물(메디컬센터) 2층 620㎡ ㎡당 150만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적합  
• 수원동 삼성전자 옆 의환은행건물(메디컬센터) 3층 620㎡ ㎡당 120만원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적합)

**코리아랜드공인중개사 010-3666-8949**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군면시설/점포	속삭시설/점포	공장/토지
소재지: 대구/건물: 4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4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4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소재지: 대구/건물: 39평년, 2억7천, 비교: 4층점포

광주, 전남북 무료경제정보 홈페이지 http://www.assetkorea.com  
자택크레디트 = (현장조사/권리분석/수익분석/입찰가산정/대출까지 전서비스) 중도까지 전서비스  
행복한 거래를 위한 특별한 선택! 부동산경제 전문회사 (주)에셋코리아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 경제 전문가 과정] 수강생 모집 중  
상담전화 236-3400 / 010-7570-7525